

지역 소식통

정읍시의회, 관내 노인요양병원 3개소 봉사활동 펼쳐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에서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관내요양병원 3개소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은 입원한 어르신들을 일일이 돌아보고 말벗을 해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병실 용품을 정리 해드리는 한편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안히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음식을 손수 떠드리면서 친자처럼 정성껏 돌보셨으며, 오락시간에 어르신들과 함께 박수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다양하고 알찬 봉사활동을 펼쳤다.

유진섭 의장은 '비록 미약한 손이지만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해경, 조업중 두부 출혈 응급환자 후송

부안해경서가 양양작업중 그물에 달려 있는 쇠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혀 출혈로 고생을 호소하는 응급환자를 후송했다.

부안 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경 부안군 위도면 왕 등도 서방 19해리 지점에서 양양작업중이던 강 모씨가 양양작업중 그물에 달려있는 쇠 구조물에 환자의 머리가 부딪혀 약 10cm 가량 찢긴 자상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후송했다.

부안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가동 목표 한국병원 연계 의사 지시 의거 환자조치 및 응급후송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닥터 헬기를 이용 원광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서는 합정 닥터 헬기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한 후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육정호 상수원 지킴이' 가동

정읍시가 이달부터 '육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총 17명의 육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선발, 행락객이 증가하고 낚시객이 많아지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육정호 주변 정화 활동과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육정호 상수원 지킴이는 육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로행위와 쓰레기 투기 행위, 낚시 행위, 오물 투기 행위, 레저 행위 등 육정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한 여 집중 단속과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시민 독서운동 전개

10월 말까지 독서 릴레이·토론·북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정읍시 도서관에서 '2017 한 권의 책' 선포식과 함께 본격적인 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한 권의 책 도서 선정단 회의와 은·오프라인 시민투표 등을 거쳐 선정된 올해 한 권의 책에는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강윤중 서해문집이야 카메라)'와 '견수동생, 강건미(박서진 바람의 아이들, 이하 강건미)'가 선정됐다.

'카메라'는 경향신문 사진기자인 저자가 차별과 편견의 고개를 넘느라 힘겨운 사람들 이야기와 비록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따듯한 질문과 의구심, 낯선 생각들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또 '강건미'는 지적 장애로 보봉사 탐보다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오빠 견수와 영재아이 건미의 이야기다.

정읍시 기타동호회인 푸른하늘 은하수 팀의 기타연주와 함께 시작되는 1부에서는 한 권의 책 추진 경과보고, 독서운동 선언문 낭독, 2017년 한 권의 책 발표, 독서릴레이 첫 주자들인 15개 독서동아리 대표들에게 도서 전달 등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카메라'의 저자 강윤중 씨와의 만남이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는 '카메라'의 책 속에 있는 사진 전시회와 '강건미'의 책 표지를 이용한 북아트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포식과 함께 시작된 한 권의 책 독서운동은 독서 릴레이를 비롯하여 독서 토론회, 어린이와 청소년 한 권의 책 축제, 북 콘서트, 문학가행, 독후감상화 공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0월말까지 전개된다.

독서릴레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관 학교 동아리 또는 개인별로 기적의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아 읽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도서관 홈페이지(http://mlb.jongup.gov.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539-645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로 10월말까지 전개된다.

독서릴레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기관 학교 동아리 또는 개인별로 기적의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아 읽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도서관 홈페이지(http://mlb.jongup.gov.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539-6452~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신생아 난청예방 기여 인정... 청각학회 '우수' 선정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해 치료하기 위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신생아 난청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청각학회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전했다.

'선천성 난청'은 선천성질환 중 발생률이 높은 질환 중 하나로 언어 및 학습 장애를 초래하는 병이며 출생 후부터 소리에 노출되어 언어를 배우는 영유아가 청력 손실이 있을 경우 소리자극의 감소로 인해 언어장애와

지능발달 지체가 발생하게 된다. 선천성 난청은 출생 직후 초기에 발견해서 보청기나 인공와우 인식 등의 재활치료를 연계하면 언어 또는 지능 장애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차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 판정이 나온 경우 3개월 이내에 확진검사를 받을 것을 권

유하고 난청 확인 시에는 확진 검사비를 지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선천성 난청은 출생 직후 발견해 6개월 이내에 재활치료를 하면 정한 청력에 가까워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 발견·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 홍보활동

정읍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가 기한 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재 75여 개의 본점 법인에게 "꼭 알아야 할

신고 관련 주요내용과 전년과 달라진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고 앞으로 정읍시 홈페이지 팝업창(pop-up zone)에도 해당 내용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에 소재하는 14개의 세무사와 회계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위탁스(Wetax) 전자신고를 미리미리 서둘러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신고·납부기한은 4월 말일까지이며, 대상은 12월말 결산 법인의 '16년 귀속 법인소득이 해당되고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탁스(www.wetax.go.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세정과(☎063539-5274)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식품가공기능사 필기시험 대거 합격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농식품 가공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한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취득 필기시험'에서 교육생들이 대거 합격했다고 4일 전했다.

군은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식품가공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이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식품가공기능사' 자격 취득과 필기시험 대비 이론교육을 추진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간에 걸친 필기시험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응시생 63

명중 46명이 합격하면서 합격률 73%의 쾌거를 거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하면 지난 해 전국 필기시험 합격률은 47%선이었다.

고창군은 농특산물 재배작목이 다양하고 특히 복분자,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디 등 베리류 재배면적이 많아 가공 산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가공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가공산업 활성화와 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기자



안정적 혈액 수급·헌혈문화 확산

정읍시헌혈추진협의회 출범

정읍시헌혈추진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시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공이 함께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당일 위원을 위촉했다.

협의회는 정읍시와 정읍시 의회, 정읍경찰서, 정읍교육지원청, 정읍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수혈용 혈액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물론 앞으로 지역 내 혈액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로 헌혈 지원시책 수립 추진과 헌혈 릴레이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시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헌혈 운동은 이웃사랑 실천이자 나라사랑의 지름길이며 '법사민적인 사랑의 헌혈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전북도 박용준 감사관을 초청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박용준 감사관은 도덕성이 높은 개인이 크게 성공하고, 청렴도가 높은 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과

같이 청렴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경쟁력의 척도임을 깊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청렴'을 공직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전 부서에서 모든 공직자가 청렴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부서 1청렴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quantities.